



결혼·취업 스트레스 날렸어요

10km 코스를 완주한 28살 동갑내기 여고 동창생 성희지, 조라헬, 이주현, 임성아, 노시진(팀명 연예인들·사진 왼쪽부터)씨가 완주 후 펄쩍 뛰어오르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결혼과 취업 고민으로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다”며 마라톤 참가를 적극 추천했다.



3·1정신 기렸어요

5살 꼬마부터 50살 어른까지 SK텔레콤 미남센터 회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태극기 머리띠'를 하고 3·1절 정신을 기리며 5km를 함께 달렸다.



'광주의 유관순' 만세

3·1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유관순 열사 복장으로 대회에 참가한 박영금(45·남구 봉선동)씨가 하프 코스 출발에 앞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빛속 출발

출발 총성과 함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10km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빠져나가고 있다.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면서 형형색색의 우비 차림의 참가자들이 이색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새봄 여는 힘찬 질주 즐거웠다... 행복했다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건각자랑

봄비에 젖은 영산강변을 따라 풀코스에서 참가한 마라토너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의 하이파이브

하프코스 참가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다리고 있던 동료와 완주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마스코트와 기념촬영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진 부스에서 대회 참가를 환영하는 대형 마스코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42.195km에 도전한 풀코스 참가자들이 봄비를 맞으며 승춘보 구간을 달리고 있다.



마사지로 몸풀기

건강한 달리기 축제를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가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